



물오른 '손' 눈부신 '골'

손흥민 최다골 향한 질주
17경기 13골 경기당 0.76골
시즌 최대 36골까지 가능
토트넘 구단 '이달의 골 상'
10월까지 3개월 연속 선정

특점 감각에 물이 잔뜩 오른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자신의 유럽무대 한 시즌 최다골(21골) 경신을 향해 매서운 질주를 이어간다.

손흥민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5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로열 앤트워프(벨기에)와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J조 6차전 최종전을 치른다.

토트넘은 5차전까지 승점 10(3승 1무 1패)를 기록, 앤트워프(승점 12)에 밀려 조 2위에 랭크됐지만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2위를 차지해 이미 32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국내 팬들의 관심은 손흥민의 연속골 행진에 쏠린다.

지난 4일 리그와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4차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손흥민은 7일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아스널과 '복린던 더비'에서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2경기 연속골을 터트렸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득점력은 말 그대로 '크레이지 모드'다.

정규리그 11경기 동안 10골을 쏟아내 EPL 득점 2위를 달리는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예선 1골(2경기),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2골(4경기)을 포함해 17경기에서 13골을 몰아쳤다. 경기당 평균 0.76골의 엄청난 득점력이다.

손흥민은 코로나19 시즌이 평소보다 늦은 9월에야 개막하고, 유로파리그까지 함께 치르는 백빕한 일정 속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2경기를 빠지는 악조건에서도 뛰어난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다.

손흥민은 자신의 특기인 몰아치기 득점도

보여줬다. 그는 정규리그 4-5라운드에서 3경기 연속골(4골)을 터트렸고, 그 사이에 치른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1경기를 포함해 4경기 연속골(5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13골을 넣으면서 2016-17시즌 21골·2017-2018시즌 18골·2018-2019시즌 20골·2019-2020시즌 18골에 이어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이어갔다.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까지 합치면 유럽 무대에서 11시즌을 뛰는 동안 8시즌이나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 '월드 클래스'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한 시즌 '20골 고지'를 밟은 것도 두 차례다.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서 한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거둔 것은 2016-2017시즌 21골(47경기)이다.

당시 손흥민은 초반 17경기를 치르면서 17경기(정규리그 11경기 5골·UEFA 챔피언스리그 6경기 1골)에서 6골을 넣었고, 이후 FA컵에서 6골, EPL에서 9골을 보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이번 시즌 17경기에서 13골을 몰아친 손흥민의 득점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지금의 페이스만 따지면 손흥민은 4년 전처럼 47경기를 기준으로 최대 36골까지 넣을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다만 손흥민에게 부상은 피해야 할 최고의 장애물이다.

이미 지난 9월 손흥민의 햄스트링 부상을 지켜본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 역시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신경 쓰고 있다.

EPL 선두인 토트넘은 13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정규리그 12라운드 원정에 나서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손흥민은 소속 구단 선정 '이달의 골' 상을 3개월 연속 독식했다. 토트넘은 9월(한국시간) 구단 SNS를 통해 손흥민이 지난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넣은 선제골이 홈페이지 팬 투표 결과 '10월의 골'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9월 사우샘프턴전 선제골, 10월 번리전 헤딩골에 이어 세 달 연속으로 이달의 골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연합뉴스

축구 신들의 대결 호날두가 이겼다

유베, 메시의 바르샤에 3-0 승리

2년 7개월 만에 성사된 '축구의 신' 대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리오넬 메시(33·FC바르셀로나)에게 완승했다.

호날두는 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우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스페인)와의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G조 최종 6차전에 선발 출전해 페널티킥으로 멀티골을 터뜨리며 유벤투스(이탈리아)의 3-0 승리에 앞장섰다.

메시 역시 선발 출전해 분투했으나 무득점에 그쳤다.

축구선수 최고의 영예인 발롱도르를 지난 10여년간 나눠 갖다시피 해온 두 선수의 36번째이자 2년 7개월 만의 맞대결이었다.

호날두는 '메호(메시-호날두) 대전'에서 전반 12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마무리했다.

골지역 왼쪽을 돌파하다가 파울을 유도해낸 뒤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페널티킥을 차 선제골을 뽑았다.

팽팽했던 승부의 흐름을 유벤투스 쪽으로 유도하는 득점이었다.

유벤투스가 전반 20분 웨스턴 매케니의 득점으로 한 발 더 달아난 가운데, 호날두는 후반 17분 쾨슬러가 두 팀의 순위를 뒤바꾸는 귀중한 득점까지 책임졌다.

바르셀로나 수비수 클레망 랑글레가 문전에서 핸드볼 파울을 범했고, 호날두는 이번엔 반대편 구석으로 차 승리에 썩기를 박았다.

두 팀 모두 이날까지 5승 1패로 승점 15점 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호날두의 세 번째 골로 유벤투스가 바르셀로나에 상대 골득실에서 앞서 조 1위로 올라서며 16강에 진출했다.

메시도 득점하지 못했지만 명불허전의 활약을 펼쳤다. 패스 성공률이 90%에 달했고, 유벤투스 선수 전체(4명)보다 많은 7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했다.

하지만 베테랑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에게 모두 막혔다.

이날 맞대결은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소속이던 2018년 5월 이후 처음 성사됐다.

지난 10월 29일 대회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호날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결장하면서 만남이 불발된 바 있다.

두 선수의 나이가 30대 중반에 들어섰고, 소속 리그가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면 37번째 대결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표팀과 소속팀 승패 기준 통산 맞대결 전적에서는 이날 경기 결과를 포함해도 메시가 16승으로 11승을 올린 호날두에게 앞선다.

개인 기록에서도 메시가 앞선다. 메시는 호날두 소속팀과 포르투갈을 상대로 총 22골 12도움을, 호날두는 바르셀로나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총 19골 1도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터커의 꿈 더 커진다

KIA 타이거즈, 연봉 총액 105만 달러에 재계약

장타 고민 해결...스토브 리그 '수비' 숙제 풀어야

KBO리그 3년 차가 되는 프레스턴 터커가 이번에도 업그레이드에 성공할 수 있을까?

KIA 타이거즈는 9일 외국인 타자 터커와의 재계약을 발표했다. 터커는 연봉 70만 달러, 사이닝 보너스 35만 달러 등 총액 105만 달러에 도장을 찍으면서 KBO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게 됐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장타' 고민을 안고 돌아갔던 터커에게 이번 겨울에는 '수비' 숙제가 주어졌다.

터커는 2019년 해플베이커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KIA와 인연을 맺었다.

이해 5월 17일 첫 경기에 투입됐던 터커는 95경기에서 타율 0.311, 9홈런, 50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중반 영입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장타'가 아쉬움이었다.

장타 논란 속 KIA와 재계약을 이룬 터커는 웨이트 공을 들이면서 부족했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올 시즌 터커는 32차례 담장을 넘기며 팀 내 홈런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전체 6위의 성적이기도 하다.

또 113타점, 100득점까지 채우면서 타이거즈 사

상 첫 '30홈런-100타점-100득점' 주인공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장타 약점을 지우며 터커는 두 번째 재계약에 성공했다.

강렬한 성적은 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시즌 막판 극적인 순간에 활약이 부족했고, 수비의 견고함이 떨어졌다.

터커는 외야수로 1180.2이닝을 채우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수비 이닝을 기록했지만 보이지 않는 실수가 잦았다. 수비 집중력에서 아쉬움을 남긴 터커는 내년 시즌 새로운 도전에도 나서야 한다.

KIA는 약점으로 꼽힌 1루 자리에 터커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터커가 자리 이동을 해준다면 내야에 무게가 실리고 외야 운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하지만 낙관할 할 수는 없는 도전이기도 하다. 아마추어 시절 1루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터커에게는 낯선 자리다.

수비 부담이 자칫하면 타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선수지만 타격에 대해 예민한 모습도 보였던 만큼, 수비와 타격 그리고 타격과 수비가 맞물리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프레스턴 터커

성공적으로 '장타' 숙제를 풀었던 터커는 이번 겨울 또 다른 숙제를 풀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야 한다.

터커는 현재 플로리다 팜파베이에 머물면서 체력 관리와 1루 수비 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터커는 "다음 시즌에도 KIA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세심한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 구단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팬이 경기장에 오지 못했지만,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해 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체력관리와 1루 수비 훈련 등을 계속하고 있다. 내년에는 선수들과 더욱 힘을 모아 올해보다 더 좋은 팀 성적을 올리는데 밀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최형우 이틀 연속 '최고의 타자상'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 이틀 연속 '최고의 타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최형우는 8일 서울 강남구 엘리아호텔 임페리얼홀에서 열린 '2020 스포츠서울 올해의 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타자상 주인공이 됐다.

전날 '2020 조야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타자상을 받은 최형우는 이틀 연속 시상대에 섰다. 최형우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최고의 선수와 신인상 주인공도 변함없었다.

NC 다이노스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끈 포수 양의지가 '2020 올해의 선수'가 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양의지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데뷔 시즌 13승을 수확한 '고졸 투키' 소형준(KT 위즈)은 '올해의 신인'으로 선정되면서, 트로피 수집을 이어갔다.

취임 2년 만에 NC의 통합우승을 이끈 이동욱 감독이 '올해의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고, 두산 시절 탄탄한 내야와 뛰어난 야구를 구축한 SK 김민재 수석코치가 '올해의 코치'가 됐다.

'올해의 투수'는 NC의 초반 질주를 이끈 구창모의 몫이었다.

장단 후 첫 포스트시즌을 경험한 KT 프런트는 '올해의 프런트'로 선정됐다. 개인 통산 2500안타(2504개) 기록을 작성하고 현역에서 물러나는 LG 박용택은 '올해의 기록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5월 무릎 십자인대파열 부상으로 긴 재활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 9일 '2020 프로야구 올해의 상'에서 '올해의 타자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의 시간을 보낸 NC 나성범은 올 시즌 37홈런 112타점 타율 0.324로 완벽하게 부활하면서 '올해의 재기상'을 받았다. 10승 투수로 성장한 두산의 4년 차 최원준은 '올해의 성취상'을 차지했다.

발 빠른 코로나19 방역 대책 수립으로 정규시즌 완주를 이끈 한국야구위원회(KBO) 코로나대응 태스크포스(TF)팀은 '공로상'을 받았다.

한국인 야수 메이저리거 최초로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은 팜파베이 최지만은 특별상 영예를 안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